

#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

오정미\*\*

## 차례

1. 서론
2. 다문화교육 관점에서의 초·중·고의 문학작품의 현황과 문제점
3. 이주민 설화의 다문화교육적 내용과 의의
  - 3.1. 이주민 설화의 다문화교육적 내용
  - 3.2. 이주민 설화 구술의 다문화교육적 의의
4. 결론

## <논문 개요>

이 연구는 이주민들이 구술한 다민족의 설화를 통하여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초·중·고 국어 교재에 텍스트로 선정된 이주민이 주인공인 다문화 문학은 정형화된 이주자와 정주자 혹은 서사구조를 가진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주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생산하는 다문화문학의 문제점을 개선할 새로운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특히, 다양한 교육 목표의 수립과 새로운 작품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주민의 설화를 새로운 다문화 교육 방안으로서 고찰하였다.

다문화교육자인 뱅크스(Banks)는 다문화교육에서 ‘공감’과 ‘관심의 함양’이라는 교육 목표를 강조한 바 있고, 오랜 세월동안 많은 다문화교육자들이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주민의 설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감’과 ‘관심의 함양’을 실천하는 데 이주민의 설화가 매우 좋은 텍스트라 판단하였고 조사된 이주민의 설화를 통해 다문화교육 내용과 의의를 밝혔다. 우선, 공감과 관심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정주민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다문화교육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주민은

\* 이 논문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6년 토대기초연구지원 사업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구술 설화 DB 구축”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과제번호 2016-A431-0022).

\*\* 건국대학교 전임연구원

자신 혹은 부모에 대한 공감과 관심의 함양, 즉 자존감과 정체성의 확립을 ‘공감’과 ‘관심의 함양’의 측면에서 실천할 수 있었다.

이주민이 주인공인 창작동화와 현대소설 혹은 시가 주요 텍스트인 현재의 다문화 교육에서 이주민이 직접 구술한 다국적의 설화에서 진정한 공감과 관심의 함양을 북돋게 하는 힘을 발견하였고, 상호문화 존중의 실천을 가능케 만드는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문헌으로 번역된 다국적 설화와 달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이 직접 구술한 설화에는 ‘문화적응’이라는 다문화교육적 내용과 가치까지 발견되었다.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새로운 다문화교육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핵심어 : 이주민, 설화, 다문화교육, 문학, 교재, 텍스트, 공감, 관심의 함양

## 1. 서론

이 글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문학교육으로서 ‘이주민의 설화’를 제안하고, 이주민의 설화가 가진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학습자와 교육 목표 아래서 다층적인 방안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으며, 초·중·고 공교육의 국어과에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다문화교육이 진행 중에 있다. 다양한 문화가 내재된 문학작품의 범교과적 활용으로 문화교육을 계획하여 학생들의 문화능력을 기르자는 주장처럼<sup>1)</sup> 문학은 다문화교육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텍스트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학으로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한 어떠한 문학 텍스트를 선정할 것인가 등이 중요한 담론으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sup>2)</sup> 최근에 발표된 몇 편의 선행연구

1) 한명숙, 「다문화시대의 범교과적 문화교육 탐구: 문학경험을 통한 문화능력의 함양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106집, 한국어국어교육학회, 2016.

2) 김성진, 「상호문화주의와 세계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제4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임경순, 「다문화 시대 소설(문학)교육의 한 방향」, 『문학교육학』 제36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최영화,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의 다문화 교육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34집, 국어교육학회, 2009.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현단 외 2인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다문화에 대한 ‘이해, 개방, 수용’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1 교과서에 실린 ‘연화, 호아렌’을 분석한 후 활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sup>3)</sup> 그러나 주요 텍스트로 분석한 ‘연화, 호아렌’은 피부색의 차이로 갈등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쓴 수필로, 제시하는 주제가 너무 교훈적이고 설명적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연화, 호아렌’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대부분의 다문화 관련 문학이 ‘연화, 호아렌’처럼 이주민의 갈등, 소외 마지막으로 화해라는 정해져 있는 답처럼 서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신현단 외 2인이 밝힌 ‘이해, 개방, 수용’이라는 다문화 관련 텍스트에 대한 선정기준이 적절하며 효과적인지 의문이 든다. 다문화 관련 문학작품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집중한 또 다른 연구가 있다. 하근희는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짚진하게 보여주는 작품, 문화적으로 공정한 시선에서 서술한 작품, 다문화로 인한 갈등 외에 다양한 갈등이 함께 드러나는 작품, 문화 간 유사성이 드러나는 작품,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작품이라는 총 5가지의 작품 선정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sup>4)</sup> 이 연구 역시 선정 기준을 마련한 데에는 의의가 있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작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실제적이고 다양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자칫,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선정기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반면, 다양한 나라의 동화를 대상으로 한 정현선의 연구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된다.<sup>5)</sup> 서구 중심으로 수용된 동화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중심의 전래 및 창작동화를 바탕으로 한 ‘올리볼리 그림동화’에 관한 연구는 설화를 다문화교육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래동화의

3) 신현단·최영인·박성희, 「국어 교과에서의 다문화 관련 텍스트 분석과 선정, 활용의 준거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인문사회 21』 제7집 4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4) 하근희, 「초등 다문화교실에서 문학기반 다문화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 기준 탐색」, 『교원 교육』 제30집4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4.

5) 정현선, 「다문화교육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올리볼리 그림동화’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학』 제36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경우는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대부분으로, 기존 초·중·고의 국어교과서에서 다문화교육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설화를 텍스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실제로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관련 문학은 창작동화 혹은 수필 그리고 현대소설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다국적의 설화에 관심을 가진 정현선의 연구는 다문화교육에서 문학 장르의 다양화라는 의의를 가진다.

이외에도 다문화교육적 관점에서 국어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살펴본 선행연구처럼 대부분이 교과서에 선정된 텍스트를 분석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로, 다문화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텍스트를 발굴하거나 다양한 문학 장르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기존 텍스트의 문제점을 분석만 할뿐, 그렇다면 더 효과적인 문학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실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결책으로써 이주민의 설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주민 설화란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이주노동자와 같은 이주민이 직접 구술한 그들 모국의 설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현재까지 열외에 있었던 이주민 설화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다문화교육을 위한 문학으로서 그 의의를 살펴본 후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sup>6)</sup>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팀과 함께 약 30회의 조사를 통해 25여명의 이주민을 만나 이주민 설화를 들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설화가 다문화교육을 위한 문학텍스트로서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가늠하여 새로운 다문화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6) 현재 본 연구자는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유학생과 같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민설화’를 조사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총14명의 연구자들과 함께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9월 1일부터 시작한 이주민의 설화 조사 연구는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 DB 구축>이라는 과제명으로 2019년 8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2. 다문화교육 관점에서의 초·중·고 문학작품의 현황과 문제점

다문화교육에서 학습자는 주로 이주자였다. 다문화교육의 학습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혹은 결혼이주여성이 대부분이었고, 한국학생을 포함한 한국인들 즉 정주민이 다문화교육의 학습자가 된지는 이제 몇 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학습자의 변화만큼 교육내용까지 변화된 상황은 아니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공교육의 다문화교육용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문화교육이 실제로 상호문화교육 차원에서 이루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의 국어과에서 선정한 다문화 문학<sup>7)</sup>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정형화된 이주민과 정주민, 그리고 사건 속에서 유사한 주제의 다문화 문학이 초·중·고의 학생들에게 소개되고 있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고통을 받는 이주민 그리고 부도덕한 혹은 시혜적인 태도의 정주민이 등장하는 다문화 문학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선행연구들이 정리한 초·중·고의 교과서에 실린 다문화문학을 살펴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09년에 개정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문학작품이다.

<표 1>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관련 문학작품<sup>8)</sup>

장르	작품	출판사
시	하종오, <원어> 하종오, <밴드와 막춤>	동아출판사/천재교육 신사고
소설	김재령, <코끼리> 김려령, <완득이>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7) 다문화교육 관점에서의 문학을 통칭하여 다문화문학이라 하겠다.

8) 김성진, 위의 논문, 40쪽.

	박범신, <나마스테>	미래엔
희곡	추민주, <빨래>(뮤지컬 대본)	창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다문화관련 문학작품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상처받는 이주민들의 이야기가 중심 서사로,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주민과 정주민의 관계는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공통적이다. 중학교 1학년의 국어 교과서 문학을 살핀 김혜영의 논의<sup>9)</sup>를 인용하면 문학작품의 내용이 국제결혼과 이주가 주된 사회적 맥락이고 갈등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언어문제, 놀림과 따돌림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 혹은 같은 다문화 가정의 도움이 갈등 해소의 압도적 계기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도식화되고 정형화된 이주민과 정주민의 관계는 고등학교의 문학교재뿐 아니라 중학교에서 선정한 문학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다문화관련 문학작품<sup>10)</sup>

단원명	글의 종류	중심 인물 배경	사회적 맥락	제시된 문제(갈등)	갈등 해소의 계기
자루니의 사랑편지	수기	타이	국제결혼	다문화 인물의 사회적 차이, 개인적 차이 또는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겪음.	아기 출산 후 시집 가족의 도움. 남편과 이웃의 도움으로 한국어 실력 향상.
달리는 차은	시나리오	필리핀	국제결혼	주요 갈등-육상부의 해산과 서울로의 전학. 부차적 갈등-필리핀 출신 새엄마와의 소통 문제, 친구들의 놀림.	육상을 다시 시작함. 새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내 이름은 로자찬	면담	타이	국제결혼	한국에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두 나라 간의 유사점 찾음.

9) 김혜영, 「다문화 교육 관점에서 국어 교과서 텍스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 12집 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2년.

10) 김혜영, 위의 논문, 133-134쪽.

연화, 호아렌	생활 문	베트 남	국제결 혼	친구의 놀림, 정체성의 혼돈.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 친구와의 화해,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한 선생님의 언급, 연화의 이중언어 능력에 대해 친구들이 부러워함.
나는 대한이 엄마	생활 문	타이 완	국제결 혼	나의 언어 문제, 아들 대한이에 대한 놀림.	담임 선생님의 대한이의 중국어 능력에 대한 언급.
나와 다른 아이	소설	방글 라데 시	이주	아이들의 따돌림.	담임선생님이 초대한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대표 선수의 미국에서의 어려움 언급, 선생님의 도움.

초등학교 교과에서도 중학교와 유사한 문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초등학교에서 선정한 문학 작품에도 동아시아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정주자의 태도가 중·고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읽기 국어 교과서에 반영된 문학 속 이주민은 백인과 동남아시아의 이주민으로 나뉘어, 그에 따라 형상화된 이주민의 모습도 매우 이분법적이다. 백인 이주민이 환영받는 친구와 같은 존재라면 동남아시아 이주민은 동화적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표 3> 읽기 국어 교과서에 반영된 다문화 내용<sup>11)</sup>

지향	소재	해당제재
다문화	베트남 신부	바다 건너 불어온 향기(6-2)
	백인 학우	새 친구 제니(4-1)
	한국남편과 결혼한 아시안 신부	걱정 마(4-2)
	다문화 사이의 결혼	이모의 결혼식(1-2)

11) 이동배, 「초등 국어 교과서에 실린 다문화 관련 텍스트 연구」, 『청람어문교육』 제4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2, 86쪽.

이처럼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문화교육도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텐데, 현재 공교육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문학교육은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는 이주자와 정주자의 관계 속 줄거리의 문학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문학이 부재된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문화교육에서 다양성이 배제된 내용과 문학 장르라는 점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게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일까. 문학을 통한 다문화교육을 할 때 선결되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제재의 선정인데, 이에 앞서 다양한 문학 장르의 필요성이다. 이주민들이 주인공인 창작동화와 현대소설 혹은 시가 주요 텍스트인 상황에서, 설화가 다문화교육을 위한 문학으로서 공교육에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지 못한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어교육에서 설화는 문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제재로 인정받아왔다. 오랜 세월 여러 사람의 가치관이 녹아 있는 설화는 각 민족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제시하기 위해 가장 좋은 문학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의 국어 및 문학 수업에서도 한국의 설화는 주요한 텍스트로 인정받으며, 많은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도 한국설화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의 보편 및 특수한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텍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다문화교육에서만 설화가 텍스트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설화가 문학 및 문화교육에서 텍스트로 활용되는 것은 한국의 설화이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과 외국인 학습자에게 텍스트로서 가치를 발현하는 것은 ‘한국의 설화’여서가 아니라 ‘설화’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설화이기에 문학 교육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 교육적 가치까지 효과적으로 발현되는 것인데, 본 연구자는 이러한 설화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주민의 설화가 가진 다문화교육적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함께 배워나가는 다문화교육에서 한국의 설화뿐 아니라 이주민의 설화도 충분한 교육적 가치가 채고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에게 직접 듣는 설화가 다문화교육적으로 가진 특별한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3장에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이 직접 구술한 설화를 통해 공교육뿐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교육에서 전반적으로 지향해야할 교육 내용과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12)</sup>

### 3. 이주민 설화의 다문화교육적 내용과 의의

#### 3.1. 이주민 설화의 다문화교육적 내용

문학, 그 중에서도 설화는 오랜 세월 각 민족의 보편 및 특수한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대표 문학이다. 특정한 주제 혹은 교훈을 설명하지 않고, 다른 문화의 특성을 흥미롭게 소개해주며 그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게 하는 힘을 지닌 문학이 설화이다. 경제 및 사회적 위치로 재단하는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대신 흥미로운 경험과 지혜로 풀어 쓴 설화는 학습자가 그 설화를 만든 민족에게 상호존중, 세계에 대한 이해라는 다문화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 구태의연하게 설명하거나 주장할 필요가 없이 설화는 자연스럽게 각국의 문화와 민족성을 소개하며, 나아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만든다. 이것이 이주민 설화의 다문화교육적 의의라고 판단하며, 몇 편의 이주민의 설화를 제시한 후 구체적으로 다문화교육적

12) 2장에서 초·중·고의 다문화문학의 현황을 살핀 것은 공교육의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이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가 제시한 다문화교육 방안의 학습자는 초·중·고 학생들뿐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주민과 정주민 모두이다.

내용과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1) 정주민 대상의 다문화교육적 내용

다문화교육의 대표 연구자인 뱅크스(Banks)의 말을 인용하면, 다문화교육은 지식만으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며, 핵심 목표를 ‘공감’과 ‘관심의 함양’에 두어야 한다고 한다.<sup>13)</sup> ‘공감’과 ‘관심의 함양’은 사실 수많은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예컨대 ‘상호존중’, ‘문화통합’ 등의 교육목표와도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새로울 바 없는 뱅크스(Banks)의 ‘공감’과 ‘관심의 함양’은 현재 한국의 다문화교육에서 다시 되새김질 할 필요가 있다. 공감과 관심의 함양이란 지식 차원의 교육보다 마음으로 전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경험하며 타자의 경험과 지혜에 공감하고 감동하는 이러한 과정이 뱅크스(Banks)가 강조한 공감과 관심의 함양이고 문학이 다문화교육에서 실천할 몫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천편일률적인 서사진행과 정형화된 인물관계로 채워진 초·중·고의 다문화문학은 진정한 공감과 관심의 함양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견된다. 공감과 관심의 함양은 다양한 주제와 가치 속에서 가능할 텐데, 시혜적인 측면으로 국한되는 현재의 초·중·고의 대부분의 다문화문학은 진정한 공감과 관심의 함양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부색이 달라 고민하는 다문화가정의 아이, 그 아이를 놀리는 친구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반성과 교훈을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진정한 공감과 관심의 함양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나와 같다고 느끼며 이해하는 ‘공감’은 다문화교육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타문화에 대한

13) Banks, A. J., 『다문화교육 입문』, 모경환, 최충욱, 김명정, 임정수 옮김, 서울:아카데미프레스, 2007, 72쪽.

깊은 이해와 존중이 성립될 때 공감이라는 감정을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뱅크스(Banks)가 강조한 공감과 관심의 함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교육목표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민의 설화는 뱅크스(Banks)가 언급한 ‘공감’의 측면에서 매우 탁월한 제재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설화를 통해 ‘공감’이라는 다문화교육적 측면을 살펴보자.

게으르고 무능한 외동아들이 있었다. 외동아들을 걱정하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금화 하나를 벌어들여오도록 시키고, 만약 벌어들이지 못하면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어 금화 하나를 아버지 몰래 줬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받은 금화 하나를 들고 다음날 아버지에게 찾아갔다. 아버지는 금화를 건네받자마자 아들이 벌어들인 금화가 아니라며 불 속에 금화를 던져 버렸다. 다음날 다시 쫓겨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금화 하나를 또 건네주면서 삼일 후에 돌아오라고 했다. 삼일 후, 아들은 금화 하나를 들고 다시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또 화를 내며 금화를 불 속에 던져버렸다. 다음 날, 아들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몰래 집을 나갔다. 그리고 아들은 한 달 후에 금화 하나를 들고 아버지께 찾아갔다. 아버지가 다시 그 금화를 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했다. 그러자 아들이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번 돈이라고 소리 지르며 아버지를 붙잡았다.

〈금화(엽전)〉<sup>14)</sup>

이주민설화 조사에서 만난 4명의 사우디 유학생이 구술한 〈금화(엽전)〉라는 설화이다. 〈금화(엽전)〉는 사우디 학생 4명이 함께 공동으로 구술할 만큼 매우 대중적인 사우디의 설화이다.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독립, 특히 자신이 직접 번 돈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금화(엽전)〉는 교훈적인 설화로, 사우디만의 특수한 문화보다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서사화한 이야기이다. 지구의 반 바퀴를 돌아야 만나는 사우디라는 먼 나라의 설화 〈금화(엽전)〉에서 한국 학습자들은 자신들과 닮아 있는

14) 2016. 10.28. 압둘라 르만 외 3인 구술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고, 나와 같다는 공감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인류의 보편적 주제를 설화하는 설화를 통해 히잡을 쓴 다른 문화의 사우디인들이 나와 같음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은 공감이라는 다문화교육의 실현이다. 결국 이러한 공감은 타문화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두려움 혹은 무시하는 왜곡된 태도를 변화하게 하는 첫 걸음이 되어, 최종적으로 학습자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게 한다. 설화를 통해 학습자는 타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나와 같은 세계관을 발견하며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공감의 다문화교육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설화와 매우 유사한 타국가의 설화, 즉 세계 광포설화는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정주민 학습자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경험하게 만드는 매우 좋은 텍스트이다. 나와 같다고 이해하며 느끼는 공감의 감정을 같은 서사의 이주민의 설화를 통해 정주민 학습자가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옛날에 소를 키우며 사는 우랑이라는 청년이 소의 지시에 따라 지상으로 목욕하러 온 선녀의 옷을 숨겼다. 그것이 직녀의 날개옷이었고 우랑과 직녀는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하늘의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곧 헤어지게 되었다. 직녀를 잊지 못한 우랑은 하늘로 간 직녀를 따라 갔지만 서왕모가 은하수로 둘의 사이를 막았다. 그러나 둘의 사랑에 감동한 까마귀가 매년 음력 7월 7일에 오작교를 만들어 우랑과 직녀를 상봉하게 해주었다.

<우랑직녀><sup>15)</sup>

중국에서 이주해 온지 13년 차의 주경화씨가 들려준 설화 <우랑직녀>이다.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과 <견우직녀>가 섞인 <우랑직녀>는 중국에서 매우 유명한 설화이다.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중국의 <우랑직녀>는 사실 보통의 한국인에게는 매우 낯선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한국인

---

15) 2017. 04.05. 주경화 구술

들은 <선녀와 나무꾼>과 <견우직녀>가 한국의 고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국가에 한국과 유사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주민 학습자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면서도 동시에 다문화교육에서 공감이라는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 <우랑직녀>와 같은 세계광포설화는 타문화를 나와 같게 만드는 공감의 측면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즉 세계 광포설화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민족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열린 시각을 제시해주며, 현재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념을 학습자에게 달해 줄 것이다.

다음은 ‘관심의 함양’이다. 뱅크스(Banks)가 언급한 관심의 함양은 다문화교육적으로 접근해보면 세계문화에 대한 흥미와 이해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공감’이 인류 문화의 ‘보편성’에 무게의 축이 있다면, ‘관심의 함양’은 문화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어린 학습자일수록 관심의 함양은 다른 문화에 대한 새로움에서 탄생될 것이다.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흥미로 이어지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관심의 함양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낯선 화소로 채워진 타국의 설화는 관심의 함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다문화교육적으로 좋은 텍스트이다.

옛날에 신들의 옷을 수선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점점 신들의 옷을 수선하고 만드는 일이 힘들고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여자는 신들이 한번 만든 옷을 오랫동안 입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자는 쉽게 찢어지거나 닳지 않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여자는 신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 가죽 옷을 본 신들은 크게 화를 내며, 별로 여자가 그 가죽 옷을 입고 평생을 살게 하였다. 그 가죽 옷을 입은 여자는 첫 번째 원숭이가 되었다.

<첫 번째 원숭이><sup>16)</sup>

---

16) 2016.12.21. 룩파네스 구술

필리핀에서 이주해 온지 약 23년이 된 결혼이주여성 롯데네스씨가 들려준 설화 <첫 번째 원숭이>이다. 원숭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한 유래담 형식의 <첫 번째 원숭이>는 ‘원숭이가 혹시 사람이 아닐까?’ 혹은 ‘사람의 조상이 아닐까?’와 같은 어릴 적에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보았던 질문과 연관된 이야기이다. 맨 처음 원숭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생겨났는지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에 관한 <첫 번째 원숭이>는 낯설지만 매우 흥미롭게 다가오는 필리핀의 설화이다.

이처럼 <첫 번째 원숭이>는 한국의 정주민들에게는 매우 낯선 화소이며 서사를 가진 이야기이다. 최초의 원숭이가 신에게 벌 받은 사람이었다는 서사도 매우 낯설지만 원숭이라는 화소가 호랑이와 토끼에게 익숙한 한국 정주민에게는 매우 낯설고 흥미롭다. 필리핀의 자연문화가 원숭이가 많이 서식하는 환경이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첫 번째 원숭이>는 문화의 특수성의 측면에서 필리핀에 대한 관심의 함양을 불러일으킨다.

이외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베트남에서는 소와 까마귀, 몽골에서는 낙타와 쥐, 사우디에서는 당나귀 등이 자주 출현하는데 낯선 동물의 등장 자체는 흥미로움을 만들고 다시 관심의 함양으로까지 연결된다. 실제로 이주민 설화 조사에서 만난 이야기 속 동물들은 타국가의 자연 생태계의 특성을 조사자들에게 소개해주면서도 동시에 설화의 주인공인 그 민족에게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만들었다. 이국적인 소재가 다민족에 대한 관심의 함양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 학습자가 호랑이와 토끼가 많이 등장하는 한국 설화 속에서 한국의 자연 생태계 문화를 배우고 호기심을 가졌다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학습자는 호랑이와 토끼가 풀어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한국만의 특수한 가치관과 문화를 배우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주민의 설화 속 낯선 동물이나 환경과 같은 화소들은 한국학습자들에게 이주민 국가에 대한 호기심을 만들고, 그 가운데 이주민 국가에 대한

여 지속적인 관심의 함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주민의 설화 조사 현장에서 본 연구팀도 낯설고 새로운 이야기일수록 더 큰 호기심과 관심을 느꼈고, 이것은 다시 그 설화를 창조한 국가에 대한 관심의 함양으로 연결이 되었다. 즉 낯설고 다름에 대한 흥미는 다시 그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의 함양을 일으켜, 최종적으로 다문화교육의 목표인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관심의 함양’은 설화가 가진 속성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한다. 짧지만 강력한 화두를 하나씩 숨기고 있는 설화의 속성이 단편적인 흥미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의 함양으로 연결하게 해준다. 사람이 편하자고 동물을 죽여서 그 껍질을 옷으로 삼는 것은 인간문명의 자기중심적인 약탈성을 대변한다고 한 신동훈<sup>17)</sup>의 연구처럼 <첫 번째 원숭이>의 강력한 파장력은 가벼운 흥미에서 끝나지 않고, 다문화교육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함양으로 귀결되게 하는 것이다. 마치, <첫 번째 원숭이>가 필리핀에서 오랜 세월 구전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정주민 학습자에게도 <첫 번째 원숭이>는 생명존중이라는 강력한 화두와 함께 필리핀에 대한 관심의 함양을 배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 설화가 모색하는 정주민 대상의 다문화교육적 내용은 공감과 관심의 함양의 측면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특히, 보편적 주제의 이주민 설화는 ‘나와 같다.’는 공감을 실현하고, 특수한 제재의 설화는 흥미를 일으키며 타문화에 대한 관심의 함양을 실천한다.

## 2) 이주민 대상의 다문화교육적 내용

‘공감’이라는 교육목표 아래서 정주민 학습자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학습했다면, 이주민 학습자에게 ‘공감’은 모국 혹은 부모 나라에

17) 신동훈,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다문화 문식성의 질적 심화와 확장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제180집, 국어국문학회, 2017, 299쪽.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의 실현’을 학습시킨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이주민들에게 정체성과 자존감은 한국문화로의 적응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교육목표이다.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유학생,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이주자이면서 동시에 소수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공감이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의 실현이 필요하다. 이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출신 국가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은 채,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에는 ‘코르트’라는 우유로 발효한 전통 과자가 있다. 옛날에 러시아인에 의해서 카자흐스탄에까지 노예로 끌려온 한국인들이 있었고, 그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른다. 카자흐스탄인들은 감옥에 갇힌 고려인들이 불쌍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코르트’를 감옥 안에 던져주게 시켰다. 감옥을 지키던 러시아인들은 ‘코르트’가 돌맹이인 줄 알고, 카자흐스탄인들의 행동을 내버려뒀다. 처음에는 고려인들도 그것이 돌맹이인줄 알고 먹지 않았지만, 그것이 과자인 것을 알고 ‘코르트’를 먹으며 살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인들과 고려인들은 ‘코르트’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코르트’와 고려인〉<sup>18)</sup>

카자흐스탄에서 유학 온 지 3년 차의 이주민인 아쭈바이에바 씨가 들려준 ‘코르트’ 과자에 얹힌 이야기이다. ‘코르트’는 현재도 카자흐스탄에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과자이다. 카자흐스탄인들이 건넨 ‘코르트’ 덕분에 고려인들이 살 수 있었다는 위의 설화는 역사차원에서 세계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좋은 텍스트이다. ‘고려인’이라는 어휘를 통해 한국인의 이주의 역사를 배우고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역사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민과 정주민의 관계에 대하여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18) 2017.03.24. 아쭈바이에바 구술



<‘코르트’와 고려인>은 한국으로 이주해 온 수천 명의 카자흐스탄인들에게 건강한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좋은 설화이다. <‘코르트’와 고려인>에는 다음과 같은 다문화교육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다. 첫째, 누구든지 이주민이 될 수 있고, 이주민과 정주민의 관계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둘째, ‘코르트’라는 과자가 가진 다문화적 의미, 정주민과 이주민의 소통을 상징하는 ‘코르트’의 중요성은 다문화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정주자의 입장에서 고려인들을 도운 카자흐스탄인들의 행동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주민 입장의 수많은 카자흐스탄인들에게 그들의 자존감을 복돋기에 충분한다.

이처럼 이주민의 설화는 이주민의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문학텍스트로서 다문화교육적 의미가 충분하며 최종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이라는 교육목표에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관심의 함양’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주민 대상의 다문화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정체성의 회복이다.

옛날 옛날에 따뜻한 할아버지와 차가운 할아버지가 내기를 하였다. 차가운 할아버지가 먼저 9일 동안 이 세상을 다 얼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따뜻한 할아버지가 얼린 것을 모두 녹여 바다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따뜻한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시 녹였다며 승리에 기뻐하자, 차가운 할아버지가 소의 발을 가리키며,

“소의 발은 아직 얼어있네.”라고 말하였다. 얼어있는 소의 발을 확인한 따뜻한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소의 발을 찍었고, 그 후로 소의 발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9일 동안의 추위><sup>19)</sup>

몽골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 한 후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산지 12년 차인 투스자르칼씨가 구술한 <9일 동안의 추위>라는 몽골의 설화이다.

---

19) 2016.12.14. 투스자르칼 구술

몽골의 겨울은 매우 춥다. ‘소의 발이 어는 겨울이 왔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몽골의 겨울은 한국에 비해 매우 춥다. 이외에도 추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 이주민설화 조사에서 만난 몽골국적의 이주노동자이신 노로브남씨가 들려준 <9일 동안의 추위>에 관한 인터뷰 내용이다.

어린 9일. 그리고 그 다음 9일, 중간에 있는 9일은 청, 청소년, 청소년이랑 비슷해요. 이쁘라고 그러면. [조사자: 청년?] 청년. 9일. 청년 9일이고, 그 다음은 늙은 9일이에요. 늙은 9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그 추울 때가 이 중간에 있는 [조사자1: 청년 9일?] 청년 9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때 그, 그 9일, 9일마다의 특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서 그 제일 어려운 그 9일은 소꼬리가 얼어 부러지는 9일이 있어요. [조사자들: 소꼬리?] 네. 소꼬리가 얼어서 부러지는 9일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추운 때야. 추울 때야. 부러지는 9일이 있어요. 그때가 추운 때야, 추울 때야. [조사자: 그게 그냥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꼬리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꼬리가 그렇게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짧은 꼬리 가진 소 자주 봐.(생략)

소꼬리가 잘려 나갈 만큼 춥다는 몽골의 9일 동안 청년 겨울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톱스자르칼씨가 구술해 준 <9일 동안의 추위>와 같이 몽골의 날씨에 관한 이야기이다. 흥미와 감동뿐 아니라 설화를 통해 몽골이라는 국가의 계절과 날씨를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자연 및 사회 등의 다양한 문화를 기억하게 하는 설화는 이주민에게 잊혀져가는 모국에 대한 기억, 그리고 정체성으로 연결이 된다. 어릴 적, 부모님이 들려준 혹은 책에서 읽었던 모국의 설화는 이주민에게 잊거나 부정하던 모국에 대한 관심 나아가 건강한 정체성의 확립으로까지 다문화교육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이주해 온 디다넬씨와 포유미네씨의 설화 조사과정에서 실제로 연구자가 확인한 관심의 함양이라는 측면의 다문화교육과정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포유미네씨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항상 잘 말하지 않는데...”

디다넬씨가 활짝 웃으며 설화를 구술하는 포유미네씨를 보며 조사팀에게 한 말이다. 적극적이고 쾌활한 디다넬씨와 달리 포유미네씨는 매우 어두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묻는 말 외에는 입을 꼭 다물고 있던 포유미네씨가 어느 순간부터 디다넬씨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그것은 설화를 구술하기 시작하면서의 변화로, 포유미네씨는 디다넬씨와 함께 설화를 구술하면서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변하였던 것이다. 설화를 구술하는 과정 속에서 디다넬씨와 포유미네씨는 잊었던 캄보디아의 여러 관습과 문화를 설명하며 캄보디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그 과정은 관심의 함양이라는 다문화교육의 한 장이었다. 이주민의 설화가 다문화교육을 위한 좋은 텍스트라는 점과 함께 이주민의 설화 구술이 가지는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즉 이주민 설화의 서사가 가지는 다문화교육적 가치뿐 아니라 이주민이 직접 모국의 설화를 구술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주민 대상의 건강한 다문화교육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화는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도 엄마 혹은 아빠 나라에 대하여 관심의 함양을 실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텍스트이다. 설화의 흥미로운 서사는 어린 학습자에게 낯선 엄마와 아빠 나라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관심의 함양으로 연결이 된다. 예컨대, 설화 <9일 동안의 추위>는 흥미로운 서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몽골의 날씨와 계절 나아가 자연문화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 지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건강한 정체성 확립과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공감과 관심의 함양의 측면에서, 이주민의 설화는 이주민 자신과 그들의 2세에게 모국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획득하게 만든다. 특히, 설화의 구술은 잊혀가던 모국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키며, 정체성과 자존

감이라는 다문화교육적 내용을 실현시킨다.

### 3.2. 이주민 설화 구술이 가지는 다문화교육적 의의

수많은 문학 중에서도 설화, 이주민의 설화가 가지는 다문화교육적 가치는 이제 범박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한국어로 번역된 이주민의 설화, 예컨대 ‘올리볼리’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데 나아가 이주민이 직접 구술한 설화의 다문화교육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문헌 자료를 번역한 다국적의 설화와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에게 직접 조사한 이주민 설화의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주민의 설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다문화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sup>20)</sup>

우선, 이주민에게 직접 듣는 설화는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주민이 직접 선택한 설화라는 점에서 다문화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수많은 모국의 설화 중에서도 이주민이 집중하여 구술하는 설화에는 현재 한국에서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서사가 있다. 물론, 기억하는 설화를 우선적으로 구술하거나 유명한 설화를 구술하는 경향도 있지만, 설화라는 구비문학의 특성상 자기서사가 반영된 설화를 선택하고 변형시켜 구술하는 양상을 이주민의 설화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모성과 관련한 설화를 구술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했으며, 또한 동일한 결혼이주여성일지라도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선정한 설화의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에서 이주한 지 17년이 된 결혼이주여성인 롯데네스씨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현재 영어 강사를 하고 1남 1녀의 자녀를 둔 단란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이다. 한국에서 성공적인 문화적응을 한 롯데네스씨는

20) ‘이주민 설화 구술의 가치’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축적된 후 후속 논문에서 통계를 내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을 안타까워하며 이주민의 설화 구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화자였다. 그녀는 한국인들이 이주민에 대하여 가난과 같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였다. 그래서 뭇파네스씨는 한국사회에 알리고 싶은 필리핀의 문화와 사회 등과 관련한 설화들을 주로 구술하는 특성을 보였다. 예컨대, 화산, 열대과일, 섬 등에 관한 설화를 통해 필리핀의 생태 및 사회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였고, 필리핀의 철학과 가치관을 자랑스러워하며 <첫 번째 원숭이>와 같은 설화를 주로 구술하였다. 추측컨대, 10년 이상의 한국에서의 삶을 산 이주민의 경우, 이미 성공적인 문화적응을 한 상태로, 뭇파네스씨와 같은 이주민들은 개인의 문화적응보다 모국에 대한 위상을 한국에 알리고자 하는, 즉 존중과 자존감이라는 다문화교육 차원의 설화를 구술하는 경향이 강했다.

몽골에서 온 두 아이의 엄마인 톱스자르칼씨는 주로 몽골의 어머니와 관련된 설화를 구술하는 특성을 보였다. 톱스자르칼씨는 몽골에서 부유한 집의 막내딸이면서 고학력자로, 한국에서의 사회 및 경제적 위치가 몽골의 삶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톱스자르칼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한국의 문화적응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주민이었다. 그래서 톱스자르칼씨가 주로 구술한 설화에는 몽골의 계절, 동물에 관한 우화 등도 있지만, 유독 모성과 관련한 설화를 집중적으로 구술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주민으로서 문화적응을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특히, 어머니로서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적응해야 하는 톱스자르칼씨와 같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모성에 관련한 설화는 문화적응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주민이 구술하는 모국의 설화에는 문화적응과 관련한 다문화교육적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주민이라고 통칭되지만, 각각의 다른 입장에서 문화적응을 해야 하고, 그 다름을 실제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텍스트가 이주민이 구술하는 설화였다.

유학생의 경우는 결혼이주여성과 달리 독립, 사랑, 유머와 같은 주제의 설화를 구술하는 특성을 보였다. 예컨대, 젊은 20대의 유학생들은 주로 인류 보편의 교훈을 주는 서사, 그 중에서도 ‘독립, 지혜’가 주요 키워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우디의 유학생들이 처음으로 구술한 설화가 젊은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돈을 버는 서사의 ‘금바(엽전)’인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 홀로 고향을 떠나 독립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유학생들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는 모국의 설화였던 것이다. 설화의 구술조사를 통해 20대의 청년 유학생들에게 ‘독립’, ‘지혜’와 같은 키워드가 한국의 문화 적응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주민이 직접 구술한 설화에는 문헌을 번역한 설화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함이 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는 한국의 문화적응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들로, 문헌 자료를 번역한 텍스트와 비교할 수 없는 다문화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민족의 다양한 설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주민이 직접 구술하는 설화에는 다문화교육적 의의가 담겨 있다. 문헌으로 번역된 다민족의 설화는 반복적으로 답습되는 경향이 강하다. 언어적 한계 때문에, 한국에 소개된 다민족의 설화는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번역되거나 활용되는 것이다.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설화가 지속적으로 소개되기도 하는 것인데, 이주민이 직접 구술하는 설화에서 우리는 작은 마을의 전설, 소수민족의 문화가 담긴 설화 등 다양한 설화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이주민이 구술하는 가운데 설화의 서사가 왜곡되거나 변형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왜곡과 변형의 과정 속에 다문화교육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도 있다.

이처럼 이주민이 직접 구술하는 설화에는 다문화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데, 설화의 내용이 가지는 다문화교육적 의의뿐 아니라 설화를 구술하는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다문화교육적

의의도 크다. 설화를 구술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다문화교육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는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

#### 4. 맺음말

설화는 다문화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문학이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에서도 한국의 설화는 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을 위한 좋은 텍스트로 평가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와 같은 공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다문화교육 현장에서 설화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의 초·중·고에서 선정한 다문화문학은 정형화된 이주자와 정주자 그리고 서사구조를 가진 창작동화, 현대소설, 혹은 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의 설화는 뱅크스(Banks)가 강조한 ‘공감’과 ‘관심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천하기에 매우 좋은 텍스트이다. 그래서 이주민의 설화가 다문화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방안이라는 점을 제안하며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의 초·중·고의 다문화문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문학 장르의 다양화와 ‘공감’과 ‘관심의 함양’이라는 교육목표 아래서 이주민의 설화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화의 다문화교육적 의의를 살핀 것이다. 그 결과, 이주민 설화에는 현대의 다문화문학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역사성과 문화적 관점이 발견되었고, 설화 자체가 하나의 다문화 문학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이 직접 구술한 설화의 다문화교육적 가치도 확인하였다. 문헌으로 번역된 다민족의 설화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화적응과 관련한 다문화교육적 가치가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 속에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이주민의 설화 구술 과정 속에서 모색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안도 함께 고찰하였다.



## 참고문헌

- 김성진, 「상호문화주의와 세계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49권, 한국문학교육회, 2015.
- 김혜영, 「다문화 교육 관점에서 국어 교과서 텍스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권 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2.
- 신동훈,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다문화 문식성의 질적 심화와 확장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180호, 국어국문학회, 2017.
- 신현단·최영인·박성희, 「국어 교과서에서의 다문화 관련 텍스트 분석과 선정, 활용의 준거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인문사회 21』 7권 4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 오정미,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의 옛이야기와 문화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2017.
- 윤여탁, 「다문화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지향과 다문화 교사 교육」, 『다문화사회연구』 6(1), 2013.
- 이동배, 「초등 국어교과서에 실린 다문화 관련 텍스트 연구」, 『청람어문교육』 46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12.
- 임경순, 「다문화 시대 소설(문학)교육의 한 방향」, 『문학교육학』 36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 정현선, 「다문화교육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올리볼리 그림동화’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학』 36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 최영화,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의 다문화 교육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4권, 국어교육학회, 2009.
- 하근희, 「초등 다문화교실에서 문학기반 다문화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 기준 탐색」, 『교원교육』 30-4,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원구원, 2014.
- 한명숙, 「다문화시대의 범교과적 문화교육 탐구: 문학경험을 통한 문화능력의 함양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6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16.
- Banks, A. J., 『다문화교육입문』, (모경환, 최충옥, 김명정, 임정수 공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7.

\* 이 논문은 2017년 11월 21일 투고되어 12월 11일 심사 완료하고 12월 14일 게재 확정함.

## &lt;Abstract&gt;

## A Study on the New Multi-Cultural Education Method through the Survey of Immigrants Folk-tales

Oh, Jung Mi (Konkuk University)

This research has suggested new paradigm for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multi-cultural folk-tales that were collected by the interview with multiracial immigrants.

The selected multi-cultural literatures at the schools as teaching materials had standardized structure on the narration. In this aspect, the immigrant's folk-tales could be new paradigm for the education because of the diversities on literature genre and work.

The immigrant's folk-tales would be excellent text to represent "Integration" and "Building interest" insisted by James A. Banks. In term of integration, it gives understanding on different culture to permanent residents. Also it can give dignity and identity to immigrants.

The immigrant's folk-tales could be new education paradigm for multi-cultural education under current system which is educated with creative children's stories, contemporary novel and poem, by arousing real integration and building interest on diversity

**Key words:** Immigrant, Folk-tales, Multi-Cultural education, Literature, Text